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도쿄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세

- 도쿄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매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9~10월에 이어 11월 초까지 큰 폭으로 순매수하며 최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 둘째주까지 약 1,857억엔 순매수해 단일기간으로 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함.
 - 세계증시가 대체로 호조세를 나타낸데 비해 보험권에 머물렀던 닛케이평균주가 지수는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확대에 힘입어 18일 현재 1만선을 상회하며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함.
- 세계증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 주식시장은 경기회복세 둔화와 엔고 등의 영향으로 보험권에 머물렀으나, 최근 엔고현상의 진정,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 수출기업들의 실적 호전 기대감 등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견인하며 상승세로 전환됨.
 - 금년 초대비 일본 주식시장은 경기회복세 부진과 엔고 등의 영향으로 -7%의 주가 상승률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 독일이 각각 6%, 5, 12% 수준의 상승률을 거둔 것과 대조를 이룸.
 - 최근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엔고현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으로 풍부한 해외유동자금이 신흥국에 이어 상승여력이 남아있는 일본 주식시장에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임.
 - 또한 엔고로 부진하던 수출기업들의 실적도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힘입어 하반기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FujiSankei Business I, 11/18)